



# IBKS 탐방 노트

IT/소재/부품/장비

이건재

02) 6915-5676

geonjaelee83@ibks.com

## 하반기 웨어러블 시장이 확장된다.

### What's New:

AI 확산, 스마트폰 고도화 및 AI 어시스턴트 도입으로 새로운 하드웨어 생태계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 보급율은 더이상 상승하기 어렵고 스마트폰 밸류체인인 혁신은 과거와 같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의 등장은 시장의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분야는 웨어러블, 특히 안경 분야인 것으로 판단된다.

**META**는 2021년부터 레이밴과 함께 299달러 스마트글래스를 출시하며 이미 시장을 선도하고 다양한 실험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해 왔다. 이러한 META가 올해 말 1,300 ~ 1,400달러의 가격대로 신규 스마트글래스인 <하이퍼노바>를 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META는 자체 개발한 AI 플랫폼 <META AI>를 통해 **음성 중심의 상호작용**에 집중하고 있으며, 하이퍼노바를 통해 AI와 웨어러블의 시너지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도 2013년 <구글 글래스>를 출시했지만, 소비자들의 외면으로 2년 만에 프로젝트를 정리했다. 하지만 AI기술 고도화와 함께 스마트글래스 시장 성장이 예측되자 다시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구글은 1,450억 원을 투자해 국내 선글래스 브랜드인 젠틀몬스터의 지분 4%를 확보했다. 이는 META의 스마트글래스가 레이밴 디자인을 바탕으로 출시되어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것과 관련이 있다. 구글도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 아이웨어 디자인 전문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아이템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삼성전자**도 올해 말 공개를 목표로 스마트글래스 개발을 진행중이다. 프로젝트 명은 해안(HAEAN)으로 삼성이 선보이는 첫 스마트글래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

### Analysis:

스마트글래스 생태계 등장으로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분야는 다양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표적 분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FPCB, 통신 모듈, 카메라** 등이며 과거 스마트폰 생태계에 속해 있던 기업들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이 높다.

### So What?: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사피엔반도체**>와 <**라운텍**>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두 기업 모두 스마트글래스 디스플레이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META의 하이퍼노바가 시리즈 최초로 디스플레이 기능을 탑재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수혜 기업으로 분류된다.

사피엔반도체는 MicroLED를 기반으로 한 LEDoS, 라운텍은 LCD를 기반으로 한 LCoS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어 차이는 있지만, 두 기술 모두 각각의 장점으로 스마트글래스에 채택될 가능성이 있어 하반기 주요 투자 아이디어가 될 가능성이 있다.